광주 시내버스 내일 전면 파업 예고…시민 불편 '초읽기'

'통상임금' 노사 입장차 팽팽 이용자 측, 1차 조정회의 불참 시, 파업 비상 수송 대책 고심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버스노조의 임 금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28일까지 타 결이 불발될 경우 광주시내버스가 29일부터 파 업에 돌입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 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수송대책 마련 에 착수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 는 지난해 대법원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 함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만큼 타협안을 도출 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전남지방 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전남지노위는 28일 2차 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1차 조정회의에 불참한 사측에 조정안을 가지고 교섭에 응할 것으로 요구했다.

노조측은 파업에 앞서 27일 오후 6시부터 28 일 오전 6시까지 조합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이미 예고한 상 태다. 광주시내버스 노조원 1,600여명 중 95% 가량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결렬될 경우 노조는 다음날인 29일 오전 5시 40분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을 요구하 고 있다. 노조는 올 1월부터 임금이 조정돼야 하 고 도시 근로자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를 맞 추기 위해서는 8.2%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며 "이번 인상안은 최소한의 생존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우 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되는 와중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인 상까지 반영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난 색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할 경우 월급은 평 균 409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인상되고 연 인건 비는 1,227억원 수준에서 1,323억으로 증가해 96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에서는 지 난 2014년 6월 이후 11년 만에 또다시 시내버스



"창포 물로 머리 감아요"

전통 명절인 단오를 나흘 앞둔 27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창포 물로 머리를 감고 있다. 옛 선조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창포 특유의 향기가 나쁜 귀신을 쫓고 머리에 윤기가 난다고 믿었다. 김태규 기자

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자 너무 큰 만큼 광주시 29일 실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조원 등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파업률이 높 아질 경우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가

시는 파업기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파업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집중 배 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이수민 기자

광주교육청-조선대'학점인정 체제'사업 추진

광주 고등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개설한 수 업을 들으면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 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조선대 본관 청출어룸 에서 조선대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에서 고교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교 -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제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교육청과 조선대는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고등학생 대상 학점인정 과목을 공동 개발·승인할 예정이다. 분야는 과학, 예체능 등

시교육청은 또 다음 달 5일 조선간호대와 같

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호 과목 개발에 들어

최종 승인된 3개 분야 과목은 오는 9월 조선 대와 조선간호대에서 개설하면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을 들은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학점 뿐 아니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 받게 된다.

다만 대학 학점 인정은 해당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교육청과 대학들은 △공동관리위원회 구 성 및 운영 △학점 인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과 목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컨설팅과 운영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한다.

다른 대학과도 협의를 통해 고교-대학 연계 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대학 4개팀 '글로컬대학'예비지정

전남대 '단독형' ·조선대 '통합형' 동신대 연합·목포해양대도 선정

5년간 최대 1,0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예비지정에 광주·전남 대학 4개팀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7일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가 마지막인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 에는 총 81개교가 5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 고 이중 25개교(18개)가 선정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단독), 조선대-조 선간호대(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초광역통합)

가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이근배 총장이 직접 글로컬대학 추 진위원장을 맡아 '인공지능이 살리는 문화인 문, 문화인문이 키우는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적 슬로건 아래 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AI 융합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혁신기획서를 마 련했다. AI 중심 도시이자 문화수도 광주의 특 성을 활용해 △전 학문분야 AI 융합교육 △ GIST-KENTECH와의 협력을 통한 AI 글로 벌 탑티어 연구 기반 구축 △AI 융합 글로벌 허 브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대는 오는 8월까지 혁신과제를 구체화하 는 실행계획서를 마련해 본지정 평가에 대비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광주시와 지역사회, 산업계와의 협

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며 기획서를 마련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 기 위한 '웰에이징 특화 전략' 을 중심으로 △바 이오메디(Bio-Medi) 스에이지테크(Age-Tech) △라이프케어(Life-Care) 등 3대 특성 화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기반 교육혁신과 연 구인프라 고도화를 제시했다.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은탄소중립 스마트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반산업 을 살리는 '지역 공공형 강소연합대학' UCC 혁신모델로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다.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는 해양산업계 역 량을 결집하고 글로컬 해양인력 육성을 위한 '1국 1해양대' 혁신모델을 제시했다.

최환준 기자

